

2019년 3분기 공약사업 언론 보도 자료

▶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 /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금강일보, 충청신문(19. 9. 6.)

금강일보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7면 사회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체험시설 배치 공원구역 경계설정
사전재해영향평가결과 점검·토론**

대전 중구는 5일 구청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구 사업 관계자 및 사업전담 TF팀, 용역업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현재 뿌리공원에서 숙박 및 체험시설 등의 시설물 배치 공원구역 경계설정과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평가결과 등을 토론했다.

구는 3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제2뿌리공원을 완공, 기존 뿌리공원과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연

계해 전국 유일 호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제2뿌리공원에 행평근린공원 등 15만 5833㎡ 규모로 가족놀이터와 수변산책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갈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뿌리공원의 부족한 공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은 4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추진해 관광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忠淸新聞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5면 지역

중구, 제2뿌리공원 조성 용역 중간점검

공원구역 경계설정·환경영향평가 등 보고... 2022년 완공 목표

대전 중구는 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업비 301억원이 소요되며 대전시,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 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중구 사업관계자와 사업전담 TF팀은 물론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컨설팅에 참여했다.

보고회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중간결과와 세부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뿌리공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물 배치에 있어 정확한 공원구역 경계설정,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평가결과 등이 상세히 발표됐다.

계획대로 오는 2022년 제2뿌리공원이 완공되면 기존 뿌리공원, 한국족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 호 테마파크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인근 문화재와 대전오월드 등과 연계,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뿌리공원은 현재 뿌리공원 인근의 행평근린공원 등 15만 5833㎡ 부지에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청소년 수

련시설 등을 조성한다. 구는 오는 11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뿌리공원의 부족한 공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추진해 관광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중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람 기자 e-gjacc@dailycc.net

▣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 /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도일보, 대전투데이 (19. 9. 6.)

中 都 日 報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2면 종합

제2뿌리공원 조성 중간보고회

중구, 행정근린공원 용역결과 논의

대전 중구는 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3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전시,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 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중구 사업관계자와 사업전담 TF팀은 물론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건설팅에 참여했다.

보고회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중간결과와 세부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뿌리공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보안을 위한시설물 배치에 있어 정확한 공원구역 경계설정과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사전재해영향평가결과 등이 상세히 발표됐다.

계획대로 2022년 제2뿌리공원이 완공되면 기존 뿌리공원, 한국축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효 테마파크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인근 문화재와 대전오월드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뿌리공원은 현재 뿌리공원 인근의 행정근린공원 등 15만 5833㎡ 부지에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대전투데이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4면 대전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도시관리계획 · 환경 · 재해영향평가용역 중간결과 설명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강(가)는 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전시,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 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중구 사업관계자와 사업전담 TF팀은 물론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건설팅에 참여했다.

보고회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중간결과와 세부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뿌리공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보안을 위한시설물 배치에 있어 정확한 공원구역 경계설정과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사전재해영향평가결과 등이 상세히 발표됐다.

계획대로 2022년 제2뿌리공원이 완공되면 기존 뿌리공원, 한국축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효 테마파크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인근 문화재와 대전오월드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뿌리공원은 현재 뿌리공원 인근의 행정근린공원 등 15만 5,833㎡ 부지에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한다. 오는 11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강 구청장은 "뿌리공원의 부족한 공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4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추진해 광광역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중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 /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충남일보, 중앙매일 (19. 9. 6.)

충남일보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6
 면 대전
중구, 뿌리공원 조성 중간보고회

대전 중구는 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전시,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중구 사업관계자와 사업전담 TF팀 등이 참여했다.

보고회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중간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뿌리공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보완을 위한시설물 배치에 있어 정확한 공원구역 경계설정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이 상세히 발표됐다.

계획대로 2022년에 완공되면 기존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효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기양 기자**

중앙매일 2019년 9월 6일 금요일 004면 종합



5일 중구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도시관리계획 · 환경 · 재해영향평가용역 중간결과 설명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5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뿌리공원 조성을 위한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30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전시,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중구 사업관계자와 사업전담 TF팀은 물론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진행 등에 참여했다.

보고회는 지난 6월 용역 착수 후 중간결과와 세부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뿌리공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보완을 위한시설물 배치에 있어 정확한 공원구역 경계설정과 환경영향평가용역과 사전 재해영향평가결과 등이 상세히 발표됐다.

계획대로 2022년 제2뿌리공원이 완공되면 기존 뿌리공원, 한국축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효 테마파크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3.유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인근 문화재와 대전오월드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뿌리공원은 현재 뿌리공원 인근의 행평근린공원 등 15만 5833㎡ 부지에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청소년 수련시설등을 조성한다.

구는 오는 11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연말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뿌리공원의 부족한 공간과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추진해 관광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 중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여성친화정책 확대 / 여성 인권 보호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도일보, 금강일보, 충청신문 (19. 9. 4.)

中 都 日 報 2019년 9월 4일 수요일 005면 사회

중구 4대 폭력예방 교육

대전 중구는 3~4일 이틀간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염건령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 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참석 직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금강일보 2019년 9월 4일 수요일 019면 금강마당

중구 직장내 4대 폭력예방교육

대전 중구는 3~4일 구청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염건령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또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란다.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忠 淸 新 聞 2019년 9월 4일 수요일 005면 지역

직장 4대폭력 예방교육 중구

대전 중구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염건령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참석 직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을 함께 들은 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하람 기자 e-gijacc@dailycc.net

여성친화정책 확대 / 여성 인권 보호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앙매일, 대전투데이, 충청투데이 (19. 9. 4)

중앙매일

2019년 9월 4일 수요일 004면 종합

중구,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3일과 4일, 이틀동안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염건령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참석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을 함께 들은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대전투데이 2019년 9월 4일 수요일 004면 대전

중구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3일과 4일, 이틀동안 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염건령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참석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교육을 함께 들은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태선 기자

충청투데이

2019-09-03 17:39

중구,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실시

[이인희 기자]



대전 중구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강사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제 주요사례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관련 사례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지원방법 등을 소개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h5700@cctoday.co.kr

저작권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희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충청신문, 중앙매일, 중도일보 (19. 7. 24. ~ 7. 25.)

忠淸新聞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005면 종합

중구 여성친화도시 참여단 모니터링 교육·현장 활동

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실무 방법을 익혔다.

뒤이은 현장 활동에서는 야간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골목 구석구석의 안전여부를 점검 후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김선옥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장은 "오늘 활동을 첫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반영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람 기자 e-gijacc@dailycc.net

중앙매일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004면 종합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첫 시작

중구청사 중회의실에서 모니터링 교육과 현장 활동 실시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은 23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실무 방법을 익혔다.

뒤이은 현장 활동에서는 야간에 청소년

이 많이 찾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골목 구석구석의 안전여부를 점검 후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한편 지난 6월 시작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동원 기자

中 都 日 報

2019-07-24 15:04

대전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본격활동 시작

(박태구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실무 방법을 익혔다.

뒤이은 현장 활동에서는 야간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골목 구석구석의 안전여부를 점검 후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김선옥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장은 "오늘 활동을 첫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반영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시작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 (19. 7. 24. ~ 7. 25.)

大田日報

2019-07-24 18:14

[사진뉴스] 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본격 활동

[김용연 기자]



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참여단은 최근 **오농정**이 거리에서 골목 안전 여부를 점검한 뒤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달했다. 지난 6월 발족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관련 정책제안, 주민홍보,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참여단은 최근 **오농정**이 거리에서 골목 안전 여부를 점검한 뒤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달했다. 지난 6월 발족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관련 정책제안, 주민홍보,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대전 중구 제공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충청투데이

2019-07-24 19:41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첫 시작

[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실무 방법을 익혔다.

이어 현장 활동에서는 야간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오농정**이 거리에서 골목 구석구석의 안전여부를 점검 후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김선옥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장은 "오늘 활동을 첫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반영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시작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정훈 기자 classstyle@ct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훈 기자

금강일보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019면 금강마당



지난 23일 대전 중구청에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교육이 열려 참석자들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 중구 제공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시작

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첫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실무 방법을 익혔다.

뒤이은 현장 활동에선 야간에 청소년이 많이 찾는 **오농정**이 거리를 찾아 골목 구석구석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부서에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김선옥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장은 "오늘 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반영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시작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도일보, 충남일보, 금강일보, 충청신문 (19.7~8월)

中叻日報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008면 특집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조직개편서 교육까지 착각... '여친도시' 향해 큰 걸음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충남일보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006면 대전



대전 중구는 13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와 대전세종연구원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 여성친화 안전도시 업무협약

사회적 약자보호·CPTED·치안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대전 중구는 13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서장 이동주)와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박재묵)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구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 중부경찰서와 ▲범죄예방을 통한 취약

점 분석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사업 ▲방범시설 확충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치안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여성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향 기자

금강일보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019면 금강마당



대전 중구와 중부경찰서,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13일 구청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구 여성친화 안전도시 조성 업무협약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와 중부경찰서(서장 이동주), 대전세종연구원(원장 박재묵)이 13일 구청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구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 중부경찰서와 범죄예방을 통한 취약

점 분석,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사업, 방범시설 확충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치안네트워크 형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여성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bo.com

忠淸新聞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005면 종합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가운데) 대전 중구여성친화도시 지정식 모습.

중구-중부경찰-대전세종연구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맞손

대전 중구는 13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 대전세종연구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구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 중부경찰서와 ▲범죄예방을 통한 취약점 분석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사업 ▲방범시설 확충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치안네트워크 형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하림 기자 (사단-중구 제공)